

우리나라 鳥羽插冠과 思想的背景

동래여전 의학학과
 조교수 진 미 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권 영 숙

I. 序 論	2. 陰陽五行 思想
II. 鳥羽冠의 由來	IV. 鳥羽冠의 實證의 考察
III. 鳥羽冠에 끼친 思想的 背景	V. 結 論
1. 鳥類崇拜 思想	

I. 序 論

인류가 관모를 쓰게된 1차적 동기는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을 막고 자연환경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그 형태는 초기에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으나 그후 인지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생활이 복잡하게 되자 일종의 사회적 산물로서 階層, 儀禮, 美冠의 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원모가 점차 실용성보다는 장식적인 요소를 띄우게 된 것은 고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지배층의 意識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표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관모의 始原인 折風에 새깃(鳥羽)이나 새꼬리(鳥尾)등을 장식한 수렵사회의 전형적인 상징물인 鳥羽冠은 고구려 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에 이르기까지 북방 문화적인 요소로서 존재해 왔다.

鳥羽冠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鳥羽冠의 형태와 유형을 중심으로 한 形態論의 고찰과 민간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류의 상징적인 의미와 역할을 중심으로 한 민속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

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상대 관식 중 조우관을 중심으로한 조우삽식의 사상적 근원을 문헌, 벽화, 출토유물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먼저 조우관의 유래를 알아본 뒤 조우삽식관의 발생과, 지배적인 사상의 근원을 한국 고대인의 조류숭배사상 및 음양오행사상을 통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삼국시대 및 가야시대로 한정한다.

II. 鳥羽冠의 由來

조우관은 한국 관모의 시원형의 하나로서 절뚝에 조우를 가삽한 수렵사회의 상징물이다. 鳥羽冠의 유래는 샤머니즘과 연관되는 조류신앙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조류신앙의 범위는 매우 넓어 우리나라와 인접한 시베리아, 만주, 몽고, 일본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져 있다.¹⁾ 오랜 시대를 전래하면서 시베리아 제민족간에 어떤 절대적 권위의 상징으로 나타나 샤만의 복장에서 중요시 되는 神帽

1) G. Niorade, 시베리아의 원시종교, 이흥식역, 1976, p. 104.

에 조우를 꽂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²⁾ 특히 시베리아 샤만의 두식장식에서 金雉, 올빼미의 털로 장식하거나 날개나 목을 없애 버리지 않은 완전한 박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제사용 관모에 사용하였다. 몽고시대에 이르러서는 귀족계급의 상징으로 변화하여 몽고의 황자들과 귀족계급의 관모에 새날개를 장식으로 꽂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³⁾ 後漢書 輿服志에 의하면 “鷩새는 호복기사를 즐겼던 전국시대 무녕왕에 의하여 武冠좌측에 鷩鳥尾 2개 가삽하였다.”⁴⁾라고 하여 중국에서는 춘추말 전국초에 무관으로 제정된 鷩새의 우모를 삽식한 활관이 조우관의 유래를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 또한 북방민족의 북제였으며⁵⁾ 전국시대의 靑銅鏡이나 漢代의 陶品에 그려진 스키타이양식의 수렵문에 의해서도 이것이 증명된다고 한다.⁶⁾

우리나라의 조우삽관은 절풍모에 조우를 가삽한 것인데 고구려 고분벽화 중국의 사서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魏書」고구려전에 의하면 “官名은 調奢, 大奢, 大兄 小兄이 있으며 머리에 折風을 쓰고 그 형은 弁과 같으며 옆에 조우를 꽂았으며 貴賤에 차이가 있다.”⁷⁾라고 하였다.

「北史」高句麗傳에는 “사람은 折風을 썼는데 그 형태는 弁이며 士人은 二鳥羽를 가삽하고 貴者는 그 冠을 蘇骨이라 하여 흔히 紫色羅로 그것을 만들어 금, 은으로 장식했다.”⁸⁾라고 하였다.

「周書」에는 “관품이 있는 자만이 二鳥羽를 그 위에 가삽한다.”⁹⁾라고 하였다.

「新唐書」에는 “大臣이 靑羅冠을 쓰고 그 아래에는 絳羅冠을 쓰는데 모두 양쪽에 조우를 꽂았다.”¹⁰⁾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弁型의 折風에 수렵사회의 상징인 조우를 관의 양쪽에 가삽하는 鳥羽插冠은 이용된 재

료와 색에 따라 신분, 관직의 구별이 엄격하였으며 고구려 관모에 널리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조우관의 기원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조우삽관의 예는 백제, 신라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백제 「北史」열전 백제조에 “朝拜와 제사때 조우삽관을 썼다.”¹¹⁾라고 하여 평상시 착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만 착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의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신라에서는 조우삽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다만 고분에서 출토되는 조우형 관식을 통해 유래를 찾을 수가 있다.

「翰苑」에 의하면 실제의 조우가 아닌 金翎로서 관모를 장식하였음을 나타내어 초기에는 자연조우를 그대로 插飾한 것에서 후기에는 지배계층의 등장과 함께 금, 은등의 금속으로 鳥羽形을 만들어 插飾하였다.

현존하고 있는 민속학적측면에서의 조우삽식의 예는 한국의 샤만에 있어서 조우를 꽂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무당들은 무구로서 부채와 장도를 가지고 다니며 전복과 전립을 착용하고 붉은 갖에 새의 깃털을 꽂아 쓰기도 한다.¹²⁾ 따라서 조우삽관의 풍습은 만주 및 시베리아 지방 등 대륙 북방의 원시종교의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조류숭배 사상에서 유래되었고 초기에는 천연의 조우 장식에서 금속제로 변화하여 점차 귀족계급 중심으로 지배계층에 주로 사용하였다.

Ⅲ. 鳥羽冠에 끼친 思想的 背景

1. 鳥類 崇拜思想

오랜 역사를 지나 오면서 고대로부터 우리 인

2) 임명순, 고구려 문화에 끼친 북방아시아의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 58.

3) 이용범, 고구려 인의 조우삽관에 대하여, 동국사학, 제4집, p. 10.

4) 後漢書, 輿服志, 武冠條.

5) 진홍섭, 삼국시대 고구려 미술이 백제, 신라에 끼친 영향, 삼국시대 미술문화, 1976, p. 195.

6) 杉本正年, 東洋服裝史 論攷: 古代編, 1979, p. 200.

7) 위서, 권1 열전, 제88, 고구려조.

8) 北史, 권94 열전, 제82, 高句麗條.

9) 周書, 卷49 열전, 제41, 異域上, 高麗條.

10) 당서, 권220 東夷 열전, 제145, 고려조.

11) 北史, 권94 열전, 제82, 백제전.

12) 임명순, 전계서, p. 58.

간에게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기기에 상응하는 원시적인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종교의식은 집단생활의 깊은 내면에 잠입하여 민족생활과 그 맥을 함께 하여온 민족의 기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삼았으며 원시적인 종교의식의 발전과정은 自然崇拜思想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연 숭배사상속에는 이미 精靈에 대한 신앙이 남겨져 있다. 이로부터 우주내의 제상이나 물체의 어디든지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곳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영혼을 인정하므로써 신의 관념이 생겨난 精靈崇拜로부터 呪力觀이 발생하게 되었다.¹³⁾

이러한 민간신앙은 천체의 움직임, 동물의 異變, 식물의 變態, 象徵性, 暗示性을 부여하여 예시적 성격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동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토렘숭배로서 생활이면에 잠재되어 동, 식물로부터 呪力을 느껴 신성시하였다.

토렘의 종교신앙은 신석기, 청동기시대로 발전하면서 샤머니즘적 이데올로기 의례로 진화되었다.¹⁴⁾ 샤머니즘은 수렵문화의 산물로서 개인주의, 동물숭배신앙, 수렵상징주의와 강하게 밀착되어¹⁵⁾ 그들의 신앙적 의례나 제물등에 가축또는 사냥의 대상물이 일반적으로 등장하며 영혼관에서도 동물세계를 모방하고 동물을 신으로 삼은 것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 샤머니즘에서 동물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⁶⁾ 또 샤머니즘은 종교적 직능자인 샤만을 중심으로하는 종교현상으로¹⁷⁾ 샤만은 통구스, 부루야드족, 야쿠트족에서만 일컬어지는 밀

로서¹⁸⁾ 원래 精靈을 지배했던 토렘동물계승자로 샤만의 보호령, 보조령이 동물모습의 정령이므로 샤만의 복식에 해골, 새모양의 모티브가 그려지며¹⁹⁾ 샤만들은 의상자체구조를 되도록 새모양과 비슷하게 꾸미려고 한다.²⁰⁾ 특히 시베리아인들 즉 돌갈인, 야쿠트인, 통구스인도 새모양을 모방한 巫服을 착용하며 유가키로인의 샤만의 巫服에서도 새의 깃털이 등장하고 만주지역에서도 샤만의 모자에 깃털로 새모양을 만들고 몽고의 샤만복에서도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어 샤만은 두복을 입으므로 자신이 새가 된 것같이 느낀다고 한다.²¹⁾

따라서 샤머니즘은 수렵문화의 산물로서 정착되어졌으며 관모에 조우를 삼식한 표현 또한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대인은 조류에 대하여 조류숭배 의미와 주술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神, 精靈, 死後의 조상과 같은 초월적 존재자는 지극히 높은 天에 거주한다고 믿었고 아울러 天神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 이러한 天神思想은 조류숭배 사상으로 나타나며²²⁾ 조류는 天神鳥, 또는 신령으로 숭배되어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부가한 조류에 대한 상징성의 사상적 배경은 첫째, 그들의 太陽숭배관에 있으며²³⁾ 鳥가 태양을 상징한다는 것은 일찍이 중국측 기록인 『淮南子』에 의하면 “日의 가운데 嵯鳥가 있다”²⁴⁾라고 하여 여기서 태양을 상징하는 嵯鳥²⁵⁾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三足鳥²⁶⁾와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또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조류중 닭이 日神鳥로 신앙되었다.²⁷⁾ 遼鬼와 光明을 상징하는 日光을 새벽에 울리내는 鷄鳥聲의 주술

13) 박계홍, 동식물의 이면, 변태에 따른 예시성, 한국민속연구, 형설출판사 p. 66.

14) 동아시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권16집, 1990, p. 511.

15) 최길성,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민음사, 1988, p. 54.

16) 최길성, 전개서, p. 542.

17) 동아시아대백과사전, 전개서, 1990, p. 511.

18) G.Nioradze, 이홍식역, 전개서, p. 15.

19) 동아시아대백과사전, 전개서, p. 511.

20) 조홍윤, 부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1991, p. 156.

21) 조홍윤, 전개서, p. 156.

22) 서재명, 건국신화에 나타난 새의 의미, 중앙대석사학위논문, 1985, p. 1.

23) 박계홍, 전개서, p. 83.

24) 淮南子, 日中有鳥 月中有

25) 嵯鳥: 태양속에 있는 세발 달린 까마귀

26) 쌍영총 주실 천정, 각저총 주실 천정, 통구사신총 원실 동벽 천정 받침등에서 보인다.

27) 서재명, 건국신화에 나타난 새의 의미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22.

관념에서²⁸⁾ 日神有鷄의 신앙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鷄神 숭배는 日神 숭배사상에 근거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조류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중국의 문헌, 우리나라 고분벽화 및 신화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은 비단 동양 뿐만아니라 고대 이집트 태양신「Ra」나 인도 고대 태양신 「Patanga」의 語意가 鳥와 相通하는 관념을 지니고²⁹⁾ 있음을 볼때 고대인들은 공중을 떠도는 태양과 그 공중을 飛鳥하는 새에 대해 유이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둘째, 靈媒者의 역할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는 現世와 來世의 媒介者로서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지녔다고 한다. 靈界를 왕래할때는 사만 자신이 鳥를 통하여 지상을 왕래할 수 있다.

세째, 鳥는 使者, 傳達者로서 役割을 가지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새를 신의 전달자로서 중요시하였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새를 이용하는 조점(Ornithomancy)이 있었다 하며 蒙古의 Buryat족은 새(독수리)가 신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降臨하였다고 믿었으며 이것은 새가 天神 혹은 천신의 使者로 信仰된 경우라 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때 샤머니즘으로부터 유래한 조류숭배사상은 조류에 대한 靈通性을 인정하는데 고대인은 인간이 죽으면 그 인간의 靈이 공중을 비조하여 死者의 영혼을 타계로 운반하는 수단을 바로 조류라고 믿어 자연히 조류를 신성시하는 관념이 발생하였고 예시적 동물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서 그 발생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鳥類信仰은 鳥類崇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자료와 문헌을 통해서 볼때 조류의 주술적 의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은 솟대상의 새로서³¹⁾ 솟대는 형태상으로 竿頭위에 새가 올려져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외에 만주, 몽고, 시베리아 제 지역에서 찾아 볼 수가 있고 이는 사만적 의미가 존속하는 민속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은 흔히 마한의 소도와 연결된다.³²⁾ 현재에도 地方 一圖에는 洞祭때 새가 얹은 솟대를 만들어 세우고 있으며 동제의 제물로 닭이 통채로 진설되고 있는 점은 한국의 조류숭배사상 즉 민간 신앙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³³⁾

한편 조류신앙과 관련된 유물 및 문헌은 구석기, 신석기시대가 청동기 시대에 비해 극히 적은데³⁴⁾ 조류에 관련된 자료는 경기도 양평군 개운면 양덕리의 고인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으며³⁵⁾ 청동기 시대 이후의 자료는 빈번히 찾을 수 있다. 유물로는 국립박물관 소장인 雙鳥竿頭飾, 송전대학교 박물관 소장인 靑銅鳥刑劔把頭飾, 李秉喆 소장인 靑銅鴨鳥刑劔把頭飾 등이 있고 문헌으로는 三國志³⁶⁾, 三國遺史³⁷⁾ 등에 기록이 보인다. 또한 고분벽화에 나타난 鳥類신앙의 예는 三足鳥와 鳳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鳥類중에서도 특히 靈物로서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이르기 까지 瑞鳥로서 숭배하게 되었고 모두 조류숭배사상으로 부터 생겨난 관념적 가상적인 새로서 사후관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고분벽화에 나타난 鳥類신앙의 예는 三足鳥와 鳳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鳥類중에서도 특히 靈物로서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瑞鳥로서 숭상하게 되었고 모두 조류숭배사상으로 부터 생겨난 관념적 가상적인 새로서 사후관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三足鳥와 鳳凰의 瑞鳥思想의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足鳥는 중국의 전설시대에 이미, 日, 月, 星辰 紋樣을 예절부터 제정하여 日의 상징에 三足の赤

28) 손진태, 중화민족의 용계신앙과 그 전설, 손진태선생전집 제2, 1981, p. 415.

29) 山石誠彦, 支那上代思想史 卷九, 藤井書店, 1943, p. 283.

30) 박호원, 솟대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석사학위논문, 1986, p. 29.

31) 이용범, 전계서, p. 16.

32) 김양옥, 한반도 청동기 시대문양연구-새와 사슴문양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11, 1981, p. 32.

33) 하효길, 새, 용왕선고-새와 용왕선의 민속학적고찰. 한국민속학 11, 1979, p. 163.

34) 김양옥, 전계서, p. 25.

35) 이용조, 한국선사문화의 연구, 1980, p. 186.

36) 三國志 魏書 弁辰傳, “以大鳥羽送死 其意欲死者飛揚”

37) 삼국유사, 권, “赤有白鷄鳴於樹下”

鳥를 그리고 있다. 이 삼足的 赤鳥는三公으로 상징되어졌던 것으로 부모와 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유기적 관계의 것으로 붉은 것은 태양 陽光을 상징한 것이다.³⁸⁾ 고구려 사람들은 신체적 기형에 대하여 일종의 종교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으며³⁹⁾ 夫餘의 王 대소가 고구려에 보낸 두개의 뱀을 가진 까마귀의 이야기와 진성여왕이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이 세개인 삼족오가 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雙楹塚 玄室 천장에 그려진 해를 상징한 飛鳥가 바로 三足鳥이며 고구려 通耶의 四神塚, 舞踊塚, 角抵塚 등의 三足鳥도 日象의 상징으로 神鳥인 三足鳥를 나타내고 있다. 이 天鳥, 神鳥는 태양을 상징한 것이며 천장에 배치하는 이유는 이러한 天鳥 사상을 나타내고, 死者의 영혼이 三足鳥가 되어 승천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鳳凰은 중국 春秋時代 이후 陰陽思想 및 道禪思想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魏, 六朝시대의 미술양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며 대부분 전설을 도식한 것인데 종교적인 자연숭배의 성격과 아울러 지방인들을 교화하는 권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래되었다.⁴⁰⁾

鳳凰은 모든 새의 왕이며 하늘의 사상을 상징한 웅대한 새였고 四靈獸의 하나이며 오색의 紋彩를 가지고 오음의 소리를 내는 새로 상징되었다. 또 봉황은 조류의 처음으로 龍이 飛龍을 낳고 그 비룡이 봉황을 낳았으니⁴¹⁾ 결과적으로 鳳凰은 天鳥이다.⁴²⁾ 봉황은 이 세상 사람과 他界에 있는 人仙과의 사이를 중개하며 인자한 瑞鳥로서 세상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⁴³⁾ 한국의 고분벽화에 표현된 사상은 봉황이 피장 주인공의 영혼을 천상으로 운반하는 신조로 되었다.

이러한 鳥類崇拜信仰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로서 변화, 전개해 왔다. 즉 鳥類崇拜信仰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청동기 시대의 농경, 삼한시대에서의 영혼불멸신앙, 삼국시대 관모의 장식들과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다.⁴⁴⁾ 청동기 시대에는 4계절의 순조로움과 풍년, 그리고 자식의 번창과 사해 및 福등을 조상의 영혼들, 거대한 힘을 가진 자연신들이 지배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자연신들이 있는 세계와 현세와의 연락을 새들이 담당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새는 청동기시대의 농경인들의 종교적이고 추술적인 의식에 있어서 天界와 現世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의식때마다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고 한다.

三韓社會에 이르러서는 鳥類信仰이 내포하고 있는 유속종의 하나인 영혼불멸신앙과 결부된 장례행사를 들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은 明界 곧 天界에 가서 地上的 生界와 같이 生을 누린다고 하는 繼世思想이 강하였다.⁴⁵⁾ 이러한 繼世思想은 崇鳥 풍속으로 진전하고 厚葬風習으로 발전하였다. 魏書 弁辰傳에 “以大鳥羽送死意欲死者飛揚”이라 하여 死者의 영혼불멸신앙에 의해 大鳥羽를 부장하였던 의미와도 상통하며 사후의 생활이 현세생활의 연장으로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론가 배회한다라는 생각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이것으로 보아 삼국사회에 있어서 鳥類는 자연물의 소극적인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死後관념까지도 포함한 매우 상징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관모의 장식등과 관련되어 설명할 수가 있다. 원래 관모에 조우를 삼식하는 풍습은 북방유라시아 기마민족으로부터 중국에서 채용된 胡族의 풍습으로 이러한 장식은 야수를 위협하거나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더욱더

38) 渡邊素舟, 동양문양사, 富山房, 1975, p. 292.

39) 이육,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1984, p. 148.

40) 정병자, 우리나라 봉황문에 대한 연구, 한양여전논문집, 제10집, 1987, p. 528.

41) 淮南子

42) 設文

43) 황오근, 한국장신구 미술연구, 일지사, 1976, p.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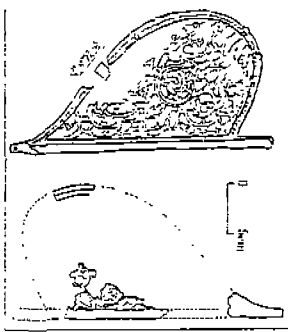
44) 김양욱, 전제서, p. 32.

45) 이은창, 한국고대벽화의 사상적인 연구-삼국시대고분벽화의 사상적인 고찰을 중심으로-성곡논총 제16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85.

46) 전해숙, 우리나라 고대상제 속에 반영된 종교관, 복식 9호, 1991, p. 38.

중요한 것은 주술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

조류를 소재로한 판모의 장식은 삼국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장신구의 하나이다. 판모의 장식으로 조우형 장식을 뜻한 것과 판모의 관형식구에 조류를 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 조우형 장식의 형태는 뒤의 조우관의 실증적 고찰에서 고분벽화 및 실존 유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으며 관형식구에 조류를 투각한 예는 고구려관의 유품으로 평남 중화군 진피리 제1호분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투각용봉문 관형식구(도 1)에서 三足鳥와 주위를 둘러싼 火炎紋내에 새겨진 봉황과 삼족오에서 조류사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백제의 능산리 중산총 출토 금동관식(도 2)에서도 U자형 금동관에 봉황 유운문을 투각한 장식이 출토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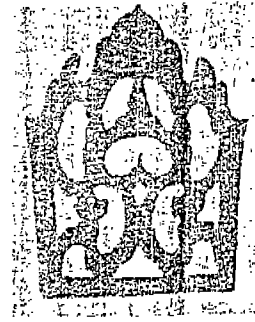


<도 1> 중화군 진피리 제1호분
금동투각 용봉문 관형식구
출처 : 고분출토 부장품연구(윤세영)

이상으로 조류숭배사상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의미변화는 있었지만 조류를 투각한 관형식구의 사실적인 표현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조류숭배사상이 조우관의 상징적인 배경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陰陽五行思想

陰陽五行思想은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현상 및 만물의 생성소멸을 陰陽과 五行(金. 木. 水. 火.



<도 2> 백제의 능산리 중산총 금동관식
출처 : 고분출토 부장품연구(윤세영)

土)의 消長變轉으로 설명하려는 학설이며 戰國末 이후 중국의 사상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후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나 음양이원론은 三經의 하나인 周易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 자체는 氣로 形而下的에 반하여 그 전체의 太極은 理인 형이상학적이며 氣가 비록 천변만화를 한다해도 그것은 모두가 理의 일정한 체도를 벗어나지 않은 太極을 본체로 한 것이다.⁴⁷⁾

太極의 원래 뜻은 북극성이지만 驚辭의 이 문장으로 보아 태극은 음양이 나누어 지기 이전에 있는 실제, 통체를 의미한다. 즉 비물질적인 원리속에 포함되어 있는 太極으로 부터 남성적인 원리(優性의 원리)인 '陽'과 여성적인 원리(劣性의 원리)인 '陰'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陰과 陽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이 水, 火, 木, 金, 土로 구성된 '五行'이며 이 五行의 상호작용과 陰陽에 침투해 있던 鬼와 神의 요소가 함께 나타남으로써 초래 된 것이 '萬物'이다.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것에 포함된 것이 바로 사람이다.

陰陽의 두 요소가 五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가 합쳐진 陰陽五行說에서는 음양이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며 오행은 음양의 조합함에 의해서 생긴 보다 고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음양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氣'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는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으나 단일한 氣의 개념만을 가지고 다양한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였으며 같은 氣라고해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선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陰氣와 陽氣가 발생한 것이다.⁴⁶⁾

이 陰陽說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모두 陰陽으로 나뉜다. '陰陽'의 의미는 '陰'은 산의 응달쪽, 즉 북쪽을 뜻하며 '陽'은 산의 양지쪽, 즉 남쪽을 의미한다. 이러한 陰과 陽은 우주적 생명의 소극적, 적극적 원리이며 상징에 의해 그림으로 묘사된다.

양은 옛날에는 乾이라고 불렀으며 天, 明, 春, 夏, 滿, 南, 父, 君, 東, 南, 高, 前, 右, 表, 剛, 動, 君子, 太陽, 勇氣, 침투력, 단자(일가원소)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龍'으로 상징되며 남정색 및 홀수와 연관된다. 풍수 또는 방위에 대한 토점술 체계에서 불쑥 올라간 땅의 형태(산)가 양의 속성을 나타내는 例라고 할 수 있다.

陰은 옛날에는 坤이라고 불렀으며 地, 暗, 秋, 冬, 女, 子, 臣, 西, 北, 下, 後, 裏, 左, 柔, 靜, 小人, 月, 정숙, 흡인력, 환상(이가원소)등 소극적이고 보조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호랑이로 상징되며 오랜시색 및 짝수와 연관되나 계곡, 개울 등이 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例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음양은 만물을 둘로 나누는 법주이며 이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음양설을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易經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陰陽說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독적인 체계적 사상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五行說과 결합해서 유행하고 있다.

五行이란 상고시대 부터 내려오는 우주관의 일종으로 정신적, 물리적 우주의 모든 존재를 다섯 부분의 구성으로 보려는 가장 오래된 자연과학적인 개념이다. 즉 五行은 水, 火, 金, 木, 土로서 이들은 서로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五氣, 五穀, 五星, 五金, 五色, 五味등은 五行의 활동으로 부터 발생하여 이들 각각은 그것에 적절한 원소에 의해서 지배되나 이들은 서로 분별 없이 조합되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앙을 초래한다. 십간 역시 오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⁴⁷⁾

따라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중국의 경서의 유입과 함께 周易의 太極說이 들어 왔다는 사실로 보아 음양오행사상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 부터라고 생각된다. 이때부터 우리조상들은 만물을 음양과 오행의 범주로 분류해 보고자 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생활전반에 걸쳐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로의 전이과정으로 두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수렵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공존이며 전자는 動적이요 鬪爭的이기 때문에 陽으로 보고 반면에 후자는 靜적이요 平和的이기 때문에 陰으로 본다면 삼국시대 문화는 전체적으로 陰과 陽의 조화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음양의 조화를 이룬 삼국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은 조우관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 첫째, 위치면에 있어서 鳥羽부분은 높은 곳(高)에 있기 때문에 '陽'이라 할 수 있고 반면에 弁형의 관모는 아래(下)에 있기 때문에 陰이라 할 수 있다. 「또 조우부분은 앞(前)에 있기 때문에 陽이라 할 수 있고 弁形의 관모는 뒤(後)에 있기 때문에 陰이라 할 수 있다.」 둘째, 象徵面에서 새는 天을 비상하기 때문에 하늘(天)을 상징하여 陽이라 할 수 있고 金屬은 땅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땅(地)을 상징하여 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鳥羽冠은 이 陰陽의 조화로 이루어진 象徵的인 관모라 할 수 있다. 또 중국에서 전래된 五行사상은 모든 만물을 오행의 범주속에 넣으려고 했으며 이 오행사상에서 기인된 四神獸思想은 벽화, 고분등에 영향을 미쳤고 四神獸는 오행사상에 따라 靑龍(木), 赤鳥(火), 白虎(金), 玄武(水)이다. 이 오행의 원리에 의해 새도 四神獸에 해당되며 특히 赤鳥인 새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조우삼식하는 표현은 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IV. 鳥羽冠의 實證的 考察

조우관은 관모부와 조우부와 구분된다. 관모부

48) 森三樹三郎, 중국사상사-노자와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임병덕역, 1986. p. 119.

49) 이용찬의 공역, 환상적인 중국문화, 서울: 평단문화사, 1988. p. 331.

는 절풍형식의 弁形형식이며 조우부는 사용된 재료에 따라 鳥羽飾冠, 鳥尾飾冠, 金羽飾冠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대 우리 나라 고대의 조우관의 유형을 고분벽화 및 고분에서 출토된 출토 유물중심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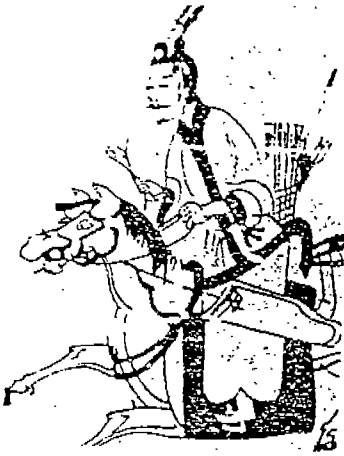
(1) 鳥羽飾冠

조우관의 기본형은 새깃을 한쪽에 꽂거나 또는 양쪽에 꽂는다. 이때 조우수는 2개를 사용한다.

조우식관의 전형적인 예는 쌍영총 서벽 남자 기마 인물상(도 3)과 사신총의 벽화등에서 발견된다.(도 4.)



<도 4> 조우식관(사신총)
출처 : 한국전통복식사연구(고북남)



<도 3> 조우식관(쌍영총)
출처 : 한국전통복식사연구(고북남)



<도 5> 조미식관(무용총)
출처 : 한국 장신구 미술연구(황호근)

(2) 鳥尾飾冠

조우식관과 달리 조미식관은 여러개의 한뿔기조미를 관의 정면 또는 정상에 꽂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미식관의 예는 무용총 주실 서벽 수렵도의 기마인물상(도 5)과 동벽 무용도의 무용 인물상(도 6)과 감신총 전실 서벽의 칼을 양손에 쥐고 서 있는 남자의 관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도 7).

(3) 金羽飾冠

새깃이 아닌 새깃모양의 금속제 장식으로서 貴者의 修飾으로 생각된다. 조우관의 기본형이 재료와 형태의 변화로 백제, 신라, 가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金冠, 金銅冠, 白華樹皮帽등으로 발전하게 된



<도 6> 조미식관(무용총)
출처 : 한국 장신구 미술연구(황호근)



<도 7> 조미식관(감신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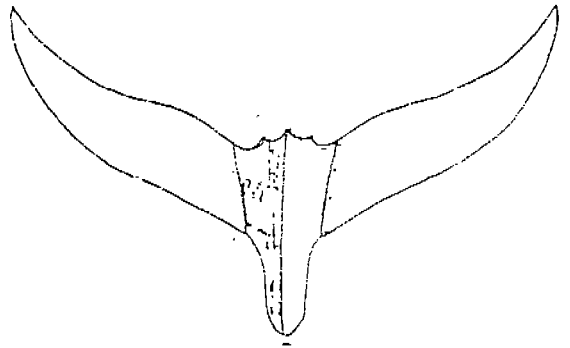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의 관모(심재환 · 이은장)

다.⁵⁰⁾ 금관은 샤먼시대의 가장 신성한 상징물이神器로서 의미를 가졌으며 이의 기본원리는 3극(天, 地, 人)의 원리인데 관은 天을 뜻하는 우주의 기본 원리의 표상을 담아 최고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관이다.⁵¹⁾ 金冠 또는 金銅冠이 중국에 존재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흔히 금동관은 스키타이계 샤먼의 권위를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⁵²⁾ 金冠은 금관의 얇은 관으로 鳥羽形을 만들어 꽃았으며 이러한 金羽飾冠의 鳥羽部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즉, 典形的인 형태와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그 원형을 조우관에서 찾을 수 있는 변형된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다.⁵³⁾

첫째, 전형적인 형태로 금우식관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중심관 양쪽의 좌우 날개가 부착된 조우식이 있다. 그 예로는 경주 황남동 제98호분 남분출토의 은제조우식(도 8), 천마총 출토 금제조우식(도 9)과 금관총 출토 금제 조우식(도 10)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 이는 고구려 관계 고기록에서 보이는 『加插二鳥羽』 『珥兩鳥羽』의 유례와 일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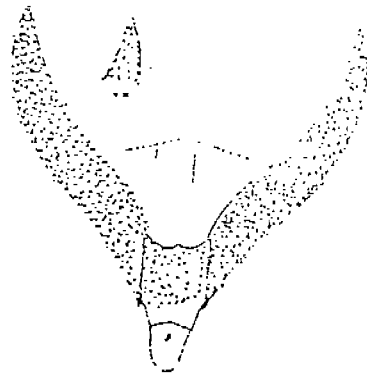
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좌우 양날개가 없이 중심관으로 구성된 조우식이 있다. 양산부부총 출토 백화수피의 전입식에서 발견된다.(도 11)

이상과 같은 전형적인 금우식의 중심관 중심관 상부의 형태는 Scytye-Shaped tail이라고 부르는 장식문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며⁵⁴⁾ (도 12), 이 양식은 고구려 관장식으로 추정되는 平北 雲山 龍湖洞 7號墳 出土 金銅 조형장식(도 13)에도 나타나고 있다.



<도 8> 銀制 조우식(경주 황남동 제98호분 남분출토)

출처 : 경주 황남동 제98호분 출토, 한국미술오백년



<도 9> 金製 鳥羽冠(천마총출토)

출처 : 경주천마총 출토, 한국미술오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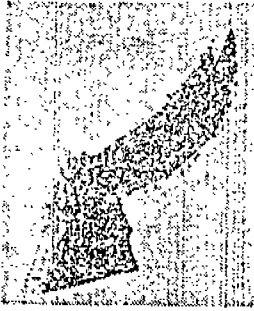
50) 박성자, 한국복식논공, 신구문화사, 1983, p. 24.

51) 박용숙, 한국고대미술문화사론, 일지사, 1978, p. 344.

52) 권태원, 백제의 관모의 계통고, 단국대사학지 제16집, 1964, p. 561.

53) 김문자, 삼국시대 조우관, 수원대논문집 제5집, 1987, p. 238.

54) 김문자, 상갈서, p.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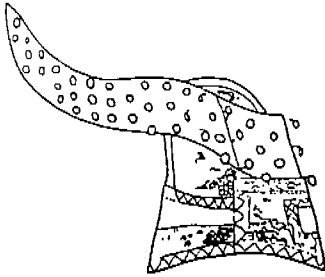
<도 10> 金冠塚内冠

출처 : 고 신라 가야고분의 편년에 관하여(윤세영, 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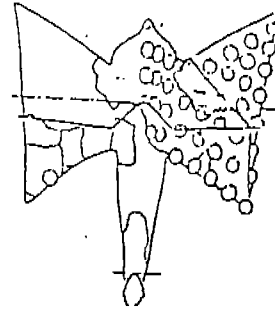
<도 13> 고구려 평북 운산옹호동 1호분출토 금동조형관 장식

출처 : 한국의 美, 고분미술(국립중앙박물관, p. 190)



<도 11> 梁山 夫婦塚(主人) 出土 金銅冠帽

출처 : 한국고대관모고(윤세영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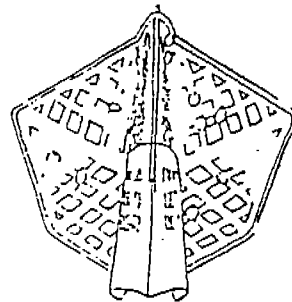
<도 14> 의성탑리 제3묘곽 금동제 조우식

출처 : 고신라, 가야고분의 편년에 관하여(윤세영, p. 67)



<도 12> scythe-shaped tail - Pazyryk barrow 출토

출처 : 삼국시대조우관(김문자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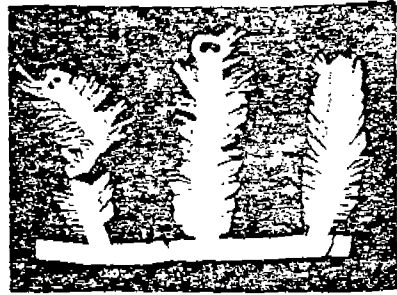
<도 15> 달성비 산동 제55분출토 금동제 변형조우식

출처 : 고신라, 가야고분의 편년에 관하여 (윤세영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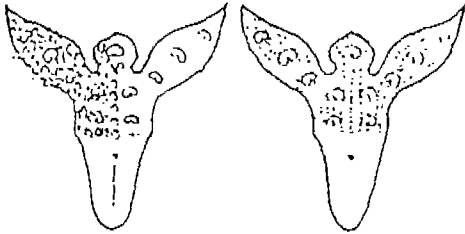
둘째, 변형된 금우식관으로는 의성탑리 고분 제 3묘곽 출토 금동제 조우식(도 14)과 달성비산동 제59호분 출토 금동제 조우식(도 15)과 천마총 출토 금제 변형조우식(도 16)에서 살펴 볼수가 있다. 또 변형된 조우식으로 臺輪飾이 있는데 이는 대륜의 중앙부위에 立飾을 세우고 그 좌우에 새긴

털 모양의 입식 장식을 비스듬하게 세우고 있다. 경주 황남동 제98호분 남분 출토 금제 대륜식 조

우관(도 17)과 가야 의성 탐리 제1묘벽출토 금동제 대륜식관(도 18)에서 살펴 볼수가 있다. 또 실제적인 새모양을 외관에 부착한 서봉총 금관의 조형식도 있다.(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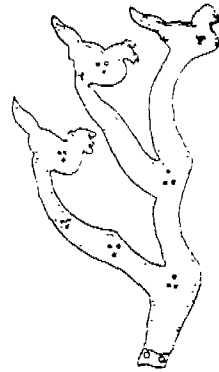
<도 18> 금동제 대륜식 조우관
출처 : 한국의美, 고분미술(p. 185)



<도 16> 천마총 출토 금제변형조우식
출처 : 한국미술 五百年



<도 17> 황남동 제98호분 남분출토 금제 대륜식 조우식
출처 : 한국의美, 고분미술(p. 186)



<도 19> 서봉총금관의 조우형장식
출처 : 한국장신구 미술연구(황호근, p. 159)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新羅, 加耶의 관모장식에서 금우장식관이 비교적 풍부하고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古新羅, 加耶의 고분에서 출토된 조

우장식이 표현된 관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古新羅, 加耶 관모장식

나라 특징	신라		가야		
	관모	장식형태	고분명	관모	장식형태
서봉총	외관	봉황형장식3개	양산부부총	내관	조익형
금관총	내관	조익형	의성탐리제1호분	외관	조익형
금령총	내관	조익형	의성탐리제3호분	내관	조익형
천마총	내관	조익형	성주성산동1호분	내관	조익형
황남동98호분	내관	조익형	달성비산동55호분	내관	조익형
황오리14호분	내관	조익형	달성비산동59호분	내관	조익형

조우형 정식은 내관의 전입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각고분에서 출토된 조익장식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瑞鳳塚 金冠

내관이 없고 외관뿐이며 금대의 교차점에서 한 줄거리에 세가지가 나고 그 끝에 각가 한마리씩 금관을 오려서 만든 새가 부착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는 새마리의 새는 단순히 길상어로 수식해 버릴 것이 아니라 북방 민족의 원시종교와 관련하여 주술적인 뜻에서 실제적인 새모양을 직접 외관에 부착하여 피장자로 하여금 혼이 봉황처럼 비상하여 천계에 이르도록 한 고대의 천조사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예이다. 도 17은 서봉총 금관의 조형식이다.

(2) 金冠塚 金冠

내관이 주체부와 조익 장식부 두부분을 형성되었는데 삼각모체의 내관 주체부에 앞에 순금제의 조우식을 꽂았으며 새나래(조익형)형으로 구상력이 풍부한 신라인의 기질을 잘보여 주고 있다.

(3) 天馬塚 金製 鳥形冠式

관모의 장신구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조형을 도안화한 것으로 나래가 위로 향하여 조류 나래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이다.

(4) 天馬塚 金製 鳥翼形 唐草紋 透刻

조익형 판식중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높이가 40cm, 판식을 장식하는데 조류송배적인 경향은 古新羅 장식법의 하나이며 조류송배라는 상징사상이 강했다는 것은 이 판식을 통해서 역력히 알 수 있다.

(4) 染山 夫婦塚

금동관의 내부에 관모가 있는데 조익형 帽이다. 관의 정면에 금동제 조익형 전입식이 꽂혀져 있다.

(5) 義城塔里 第1墓槨

가야시대 조우식중 가장 특수한 형태로서 사실적으로 표현한 예이다. 한가운데의 앞조우식과 좌우의 것을 똑같은 형태로 나타냈으며 얇은 금판을 새 꼬리털 처럼 잔잔하게 갈라지게 하여 細毛의 분열현상을 나타내고 다시 잔잔하게 갈라진 細片을 더욱 나선형으로 비틀어 羽毛형상을 실감나게 만든 것이다.

(6) 가야 의성탑리 제3묘곽

새가 두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모양으로 전개형 조우식으로 되어 있다.

(7) 황남동 제98호분

대륜식 조우식으로 대륜의 중앙부위에 입식을 세우고 그좌우에 새깃털 모양의 입식장식을 비스듬하게 세우고 있다.

(8) 달성비산동 제55호분 금동제 조우식

새가 날개를 활짝펴고 나는 모습으로 격자문을 투조한 금동판을 접어서 만든 금동판 조익부를 좌우로 전개시킨 형상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분벽화 및 현존유물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관모에 나타난 조익형 장식은 새깃의 재료면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그 형태 면에서는 좀더 사실적, 창조적으로 변화하여 관모에 꽃혀졌으므로 종교적인 조류송배사상의 성격을 띤 신앙이 조우삽관의 관념적인 배경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조우관을 중심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지배사상인 조류송배사상 및 음양오행사상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우관은 우리나라의 관모의 시원인 절봉에 새깃을 꽂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적극적인 품성과 활달한 기개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관모이다. 초기에는 천연의 조우장식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의 鳥羽장식은 金羽장식으로 변화하였고 형태면에서는 좀더 사실적, 창조적으로 변화한 관모의 장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우삽관의 풍습은 기마민족의 수렵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베리아등 북방 민족의 원시종교인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조류송배사상에서 비롯되었다. 북방문화에서 새는 사만의 의사에 따라 神界와 人間界의 매개자로 성격지워지며 死者의 영혼을 타계로 운반하는 수단이 조류라고 믿는데서 조류신앙의 발생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세째, 만물을 음양과 오행의 원리로 다루는 음양오행사상과 조우관의 관계를 보면 관의 高, 前, 새로서 표현되는 부분은 陽이 되고 下, 後, 金屬으로 표현되는 弁形의 관모는 陰이 되기 때문에 鳥

羽冠은 음양의 조화로써 이루어진 상징적인 판모라 할 수 있다.

네째, 중국에서 전래된 四神獸 사상에 의해 靑龍(木), 赤鳥(火), 白虎(金), 玄武(水)와 같이 새를 五行에 해당시킨 것으로 보아 조우관 역시 五行思想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때 烏羽冠은 우리나라 상대사회에 있어서 陰陽五行思想과 鳥類崇拜思想의 가시적인 표현 형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唐書, 권220, 東夷列傳, 제145.
2. 北史, 권 94열전, 제82.
3. 三國遺史, 권1.
4. 魏書, 권1열전, 제88.
5. 周書, 권49열전, 제41.
6. 後漢書, 輿服志.
7. 淮南子
8. 說文
9. 渡邊素丹, 東洋文樣史, 富山房, 1975.
10. 杉本正年, 東洋服裝史, 古代編, 문화출판국, 1979.
11. G.Nirade, 시베리아의 원시종교, 이홍식譯, 신문사출판사, 1949.
12. 조홍윤, 巫와 民族文化, 民族文化史, 1991.
13. V. 디오세지, M. 호왈,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최길성譯, 민음사, 1988.
14. 朴桂弘, 동식물 異變 變態에 따른 豫示性, 한국민속연구, 형설출판사.
15. 진홍섭, 삼국시대 고구려 미술이 백제, 신라에 끼친 영향, 삼국시대 미술문화, 1976.
16. 박경자, 한국복식논공, 친구문화사, 1983.
17. 박용숙, 한국고대문화사론, 일지사, 1978.
18. 森三樹三郎, 중국사상사-노자와 불교사상을 중심으로, 인명덕역, 1986.
19. 이용찬외, 공역, 환상적인 한국문화 평단문화사, 1988.
20. 류정기, 易의 原理와 實用, 동양문화, 제14집, 1974.
21. 윤세영, 고분출토 부장품,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소편, 1988.
22. 황오근, 한국장식미술연구, 일지사, 1976.
23. 권태원, 백제의 판모의 계통고, 단국대사학지, 제16집, 1964.
24. 김문자, 삼국시대의 조우관, 수원대논문집, 제5집, 1987.
25. 박호원, 솟대신앙에 관한연구, 한국정신문화원 석사학위논문, 1986.
26. 서재명, 건국신화에 나타난 새의 의미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5.
27. 심재완, 이은창, 한국의 판모-영남지방판모 조사를 중심으로, 영남대가야문화연구소, 1972.
28. 손진태, 中華民族의 雄溪신앙과, 그전설, 손진태 선생전집 제2, 1981.
29. 이용범, 고구려인의 조우삼관에 대하여 동국사학, 제4집, 1956.
30. 이용조, 한국선사문화의 연구, 1980.
31. 임명순, 고구려 문화에 끼친 계신 북빙아세아의 영향, 동국대석사학위논문, 1981.
32. 이은창, 한국고대 벽화의 사상적인 연구, 성곡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제16집, 1985
33. ———, 한국고유사상의 기원과 원류, 대구효성여대 예지 제6집, 1981.
34. 이육,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1984.
35. 이필영,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한국巫敎의 비교연구-종교사상을 중심으로, 백선학보, 제25호, 1979.
36. 전혜숙, 우리나라 古代喪制속에 반영된 종교관, 복식9호, 1991.
37. 정명자, 우리나라 봉황분에 대한 연구, 한양여전논문집, 제10집, 1987.
38. 하효길, 새, 용왕선고, 한국민속학, 제11, 1979.

Abstract

With priority given to Jowoo-Kwan, this study examined the ideologic backgrounds which had influencs on Jowoo-Kwan throughout the Birds Worship Thought and the Yin-Yang and Five-Elemnts Thought. Jowoo-Kwan with bird-feathers to

Jeol-Poong, namely the origin of the Korean Kwan-Mo, existed as a northern cultural elements until the Three States. The customs of Joo-Kwan were greatly related to the hunting life of a horse-riding people and they were dominated the Birds Worship Ideology originated from the primitive religion of a northern people, namely Shamanism. In the early days, Jowoo-Kwan with natural bird-feathers was decorated with golden bird-feathers with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and it changed realistic and creative in the form.

The results that Jowoo-kwan is applied to the Yin-Yang and Five-Elements Thought as follows.

The Higher front part represents Yang and on the other hand the lower back part does Yin. Thus, Jo-woo-kwan consists of a ideologic Yin-Yang. By means of principles of the Five Elements, Birds are included in four animals with the mean of God and especially, we can confirm it from a red bird. Expressions of Jowoo-Kwan shows the influences of the Five Elements thought.